

## 조선업 불황 직격탄... 암울한 대불산단

르포-조선소 협력업체 가보니

수주절벽에 매출 절반 '뚝'  
 구조조정설 돌아 불안  
 일감 없어 문닫는 업체도 속출

“올 상반기까진 그럭저럭 버텨 보겠지 만 하반기부터가 문제죠. 내년엔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26일 오후 2시 영암군 삼호읍 인근에서 만난 현대중공업공사 하청업체인 A사 사장 김영석(가명)씨의 말에서는 절망감이 짙게 묻어났다.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에 용접봉 등을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들은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조선경기 악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말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해 올 들어 매출이 예년에 비해 30% 가량 떨어지면서 구조조정 얘기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계 경기침체와 선박건조비용 급감 등에 따라 선박 추가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 '수주절벽'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사외하청업체인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박 블록제조업을 하는 B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300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예년의 경우 200여명대를 기록하던 매출액이 100억원으로 절반 가량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력이 감축되면서 공사물량도 줄었다. 애초엔 엔진(엔블럭)·선수(F블럭)·선미(A블럭) 등을 맡아했지만 현재는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P블럭 공사만 하고 있다.

B업체 사장 이선우(가명)씨는 “우리는



깜깜한 현실 조선업종 협력·하청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영암군 대불산단지역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근로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불산단 내 선박블록 제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블록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일감이라도 있지 않느냐”면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문을 닫은 회사도 많다”고 말했다.

조선소 협력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하면서 체불임금과 관련된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시와 영암·해남 등 목포지청이 관할하는 1개 시·8개 군의 조선소 등 제조업부문 임금체불액은 102억 68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53억180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체불임금 발생 업체 모두가 조선소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이들 지역에 조선소 관련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체임 등 노사분규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현재 현대중공업공사 사내 협력업체는 모두 70여 곳으로 대략 9000명이 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공사를 포함한 사내 협력업체는 아직까지는 조선경기 악화에 따른 경영난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공사 올해 건조물량은 42척(실적 38척)이다. 이 회사의 사세를 감안하면 한 해 평균 40~50척의 건조물량을 수주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수주를 못하게 되면 내년 건조물량은 30척

으로 감소하게 된다. 내년부턴 조선업 악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공사 측은 “아직까지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느낌은 없다. 평상시와 똑같다”면서 “다만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이 직원들은 물론 지역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원정업체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사외 협력업체는 설비 등에 최대 수백 억 원까지 투입한 상황이어서 조선경기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같은 기업은 '바늘구멍' 할만한 창업은 '정보부족'

청년의 눈물  
 지역 청년들의 호소

광주·전남지역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의 열악한 경제 기반과 취약한 경제상황이 꼽힌다.

기아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은데다, 이마저도 제조업 중심이어서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태부족인게 현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역 내 부족한 일자리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청년들은 청년실업의 일차적 책임이 중앙정부와 기업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가 (주)플인사이트에 의뢰한 '2015년 광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실업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2%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16.1%는 기업에게, 10.8%는 지방정부에, 7.4%는

노동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문항 조사는 지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결과는 지역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지역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확대(24.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조건 격차 완화(24.3%) ▲중앙정부의 고용 정책 개발 및 확대(23.5%) 등을 꼽았다.

이어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 개발 및 확대(11.5%) ▲새로운 직종의 발굴 및 홍보(11.1%) ▲직무연관교육 강화(3.1%) 순이었다.

청년 창업도 쉬운일은 아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지원 등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광주 전체 사업체수는 10만8808개이며, 이 가운데 29~39세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는 15.3%인 1만 6656개였다. 하지만, 5293개가 도매 및 소매업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3238개 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를 황금연휴?

5월6일 임시공휴일 검토

목	금	토	일
5	6	7	8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어버이날

정부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문체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이 통과되면 내달 5~8일 나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에어가전' 사업 본격화

광주시가 최근 삼성전자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 해외 이전의 대안으로 230억원을 투입해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을 하는 등 에어가전 사업에 본격 나선다.

사업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 가전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광주시는 26일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지역 거점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턴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등 모두 230억원을 투입해 혁신센터 건립, 장비 구축,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에어가전은 실내나 특정 장소에서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가전부품이나 제품군을 말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문제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 및 소비형태 변화로 급성장

## 산업부 '지역거점사업' 최종 선정 시, 230억 투입 기술개발 등 지원

예상되는 포스트 가전산업의 대표 분야다. 우선 전자부품연구원 내에 에어가전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특성 평가 지원을 위한 특화장비를 구축해 에어가전 공동연구와 제품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에어가전 산업은 광주 가전업체가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품과 브랜드 개발을 위해 2014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이다. 가전기기 소형화, 소비자 맞춤형 제품 요구 등 시장변화 대응과 최근 삼성전자 광주공장 이전에 따른 지역 가전업체의 위기 상황이 반영돼 국비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외는 별도로 가전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업종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전기업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가전·전장기술 공동연구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가전기업의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을 위한 신규 아이팀 발굴 지원과 시제품, 인증, 마케팅, 기술교류 지원 등도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16 내가슴愛약속

내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